

전 남

장흥 무산김 HACCP 인증 획득 청정 수산물 신뢰 확보 속 내수·수출 증대 날개 단다

장흥 무산김이 HACCP 인증을 획득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전남도는 20일 "장흥 무산김주식회사의 생산 시설이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적용 사업장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장흥군, 장흥무산김에서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안전성 확보, 친환경 급식 납품, 수출을 위해 지난 3월부터 HACCP 인증을 추진해 20여가지의 평가를 거쳐 최근 안전한 수산식품 인증을 받았다.

HACCP 인증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은 안전성과 위생을 최대한 보장하기 때문에 유통 점유율이 높아져 매출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소비자들도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

또 제품의 HACCP 마크를 통해 소

부자는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고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 무산김 양식여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장흥 무산김주식회사는 그동안 마른김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았고, 장흥무산김 등 등급과 장흥김 지리적표시제 등 등록을 완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농무성으로부터 USDA(유기농 인증 마크) 인증을 받았다.

장흥 무산김은 대형 백화점, 유통업체, 수도권 학교 급식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에 공급. 연간 1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주 그룹과 30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어업인 주축회 사 제품의 우수성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부까지 높은 제품으로 개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어업인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산 수산물의 우수성을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직거래 유통시장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HACCP=식품의 제조·가공·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중점 관리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설.

나주시 구도심 활성화 대책마련 나섰다

'혁신도시와 구도심 재생' 학술대회 개최... "한옥 등 정비 관광객 유치"

나주시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침체가 우려되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사)한국 거버넌스학회(회장 박영주)와 한국 정부학회(회장 조덕호), 전남대 공공행정 연구소(소장 임두택)는 최근 나주 증흥 골드스파&리조트 회의실에서 '혁신도시와 구도심 재생, 지역자원의 활용'을 주제로 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조성화 정책연구관을 "관광을 목적으로 한 문화적 재생은 구도심 쇠퇴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고, 지역의 정체성과 주민들의 삶에 근간을 두는 문화적 재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바람직한 도시재생의 방향을 제시했다.

장 연구관은 전주 한옥마을의 문화적 재생을 사례로 들며 "노후 빈 구도심이 한옥마을 정비사업을 계기로 ▲2010년 이후 연간 300만 명 이상



나주시는 증흥 골드스파&리조트 회의실에서 '혁신도시와 구도심 재생, 지역 자원의 활용'을 주제로 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방문하는 국내 대표적 관광지로서 부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전통 문화자원 복원을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가 향상됐고 ▲지가 상승에 따른 주민의 재산가치가 상승했다"고 도시재생의 성과를 꼽았다.

반면 팔강 상층에 따른 기대감으로 투자가 늘면서 원주민 이탈 가속화로 지역 커뮤니티형성의 장애요인과 한옥마을이 상업적으로 변모하면서 주

거환경이 파괴되어 기존 지역공동체가 해체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지적했다.

또한 혁신도시의 성공적 조성 및 정착과 관련, 공공기관 이전과 정부여건 지원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시각에서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부취재본부=송영철기자 yacson@

전남 농업박물관

단웃날 체험행사

24일 떡메치기등 다양

전남도농업박물관은 단오인 24일 오전 10시부터 박물관 야외 초가 마당 일원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단웃날' 민속 체험행사를 연다.

행사 당일 박물관 입장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다양한 민속체험을 통해 옛 문화를 느끼고 배울 수 있고, 야외 초가마당에 전시코너와 체험코너도 마련된다.

또 조선시대 여인들의 머리 치장 가재 10여 점을 영랑고전미술협회의 고증을 통해 마네킹에 꾸며 그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단오창포 머리감기의 재료인 무창포와 화창포의 실물과 창포뿌리로 만든 '단오장' (端午粧)을 비롯해 여러 전통의상과 쓰개모자 등도 선보인다. 이밖에 떡살과 떡메치기를 통해 단오 절식의 수리떡과 인절미 만들어 먹고, 널뛰기·그네뛰기·꽃놀이·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도 체험할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

아열대 채소 '오크라'

농가 소득작물 각광

단백질·칼슘 풍부



아열대 채소인 '오크라(사진)'가 기후 온난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가 소득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는 '오크라'를 특색 소득작물로 선정하고 재배기술과 요리법, 가공 이용법 등을 개발해 농가 보급에 나섰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오크라'는 아욱과에 속하는 채소로 독특한 식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단백질·비타민류·칼륨·칼슘·식물성유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영양가가 높다. 요리방법은 어린 꼬투리를 수확해서 튀김, 양념 무침, 초무침, 샐러드 등으로 주로 먹는다. 송기흥기자 song@kwangju.co.kr



한국음식 만들기 한창 보성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주부 20여명이 최근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생활실실에서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이주여성들의 문화적 격차 해소와 한국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보성군 제공)

개막 300여일 앞둔 순천 정원박람회

시민들 성공 다짐 릴레이 영상선언

소년시대 등 K-POP 축하 공연도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개막이 3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순천시는 20일 순천 팔마경기장에서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D-300일 기념식 및 성공다짐 대회에 이어 국내 정상급 스타들이 출연하는 K-팝(K-POP) 공연을 개최했다.

정원박람회는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란 주제로 순천만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공적률은 60%로 연내에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성위는 지난 19일 총회를 열고 박준영 도지사와 이만의 전 행정부총장, 송영수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포함 3인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체제를 갖췄다. 조중훈 순천시장은 20일 시청 소회

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위상과 지명도 제고를 위해 주최자를 순천시 외에 정부, 전남도까지 포함하는 3기관 공동으로 하기로 원칙적인 논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우 통일부는 통일장원원, 환경부와 법무부는 위곡식물 정원을 각각 조성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프로그램 마련하는 방식으로 정원박람회 참가를 계획 중이다.

또 조직위 체제도 현 사무국을 사무처로 확대개편, 전남도 3급을 사무총장으로 보임하고 사무처 인적 구성도 현 순천시 직원 중심의 80명에서 산림청 2명, 전남도 12명 등을 포함해 100명으로 증원된다. 중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강진 '가바 쌀' 해외수출 활발

日 이어 인도네시아·중국 할로 개척

강진군에서 생산된 가능성 쌀인 '가바(GABA) 쌀'이 해외로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다.

20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수출에 이어 올해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 수출된다. 강진군은 20일 군 농업기술센터 잔디광장에서 강진가바쌀 인도네시아 수출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게 되는 품목은 갈색가바 현미 3t, 갈색가바 백미 12t 등 총 15t(4만달러·4800만원)으로 20일 부산항을 출발해 이달 하순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항에 도착하게 된다. 수출된 쌀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국내 롯데마트 계열인 롯데슈퍼 27개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영암군 보건소

영암군 보건소는 최근 취학전 지역 어린이 100여명을 대상으로 정밀 시력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사대상은 지난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37개소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시력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어린이들이다.

이번 검진은 전남대 소아안과 문귀형 전문의를 초빙해 시력측정과 굴절검사, 약시검사(랑 테스트), 사시검사 등 총 4가지 검사를 실시했다. 또 한국실명 예방재단이 안과 정밀진단 장비, 유아용 자동굴절기를 비롯한 10여종의 장비를 지원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었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선기자 moon@

비새는 아파트옥상 · 슬라브 주택 · 빌라 · 공장의 희소식

www.phjibung.com

고질적인 슬라브지붕 누수 방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국내최초 특허출원번호 69701호

슬라브 방수 광판 시공법 개발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료가 최소 30% 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 이상간다.
5. 장독대, 발레 건조대도 사용할 수 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 것보다 3-4배 더 잘말린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광판과 목재로만 완벽하게 방수 시공한다.
8. 광판 바닥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터로 다시 틀어서 물받침이 원할하다. ※ 8기 특허 도용 및 이미지 도용시 개발유보권이 법적 고발조치 할수 있습니다.

단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 방수 시스템

2시에 우리 회사의 온도가 33도였는데 이정도 온도라면 집안에서는 못낼정도로 인데 지금은 시원하고 선풍기 없어도 생활해도 배수도 100미터로 새로 뚫었기 때문에 아무리 폭우가 와도 물받침엔 걱정이 없습니다. - 황금국 -

방수를 한 것이 몇가지서 무엇을 할까 고민중에 방수처리도 완벽하게 되고 슬라브 지붕도 그대로 보존되는 이종우씨가 있을 뿐 아니라 방수구멍이 사공을 뚫을때 역시 슬라브 지붕에는 단 한 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 방수 시스템이 최고입니다. - 임병준 -

슬라브 광판을 한지 4년이 되었었는데 색도 안 변하고 여름에 들어서 일하고 돌아오면 첫째, 신선하니 시원하고 선풍기 안들어도 되고 겨울에는 외출이 덜하고 연료비도 기름 두 드림 넣어 놓으면 전보다 3-4배 연료비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 성순용

한농 칼라강판 지붕개량 문의 061)335-8842 / 010-4024-4005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거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시름,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www.chilman.co.kr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